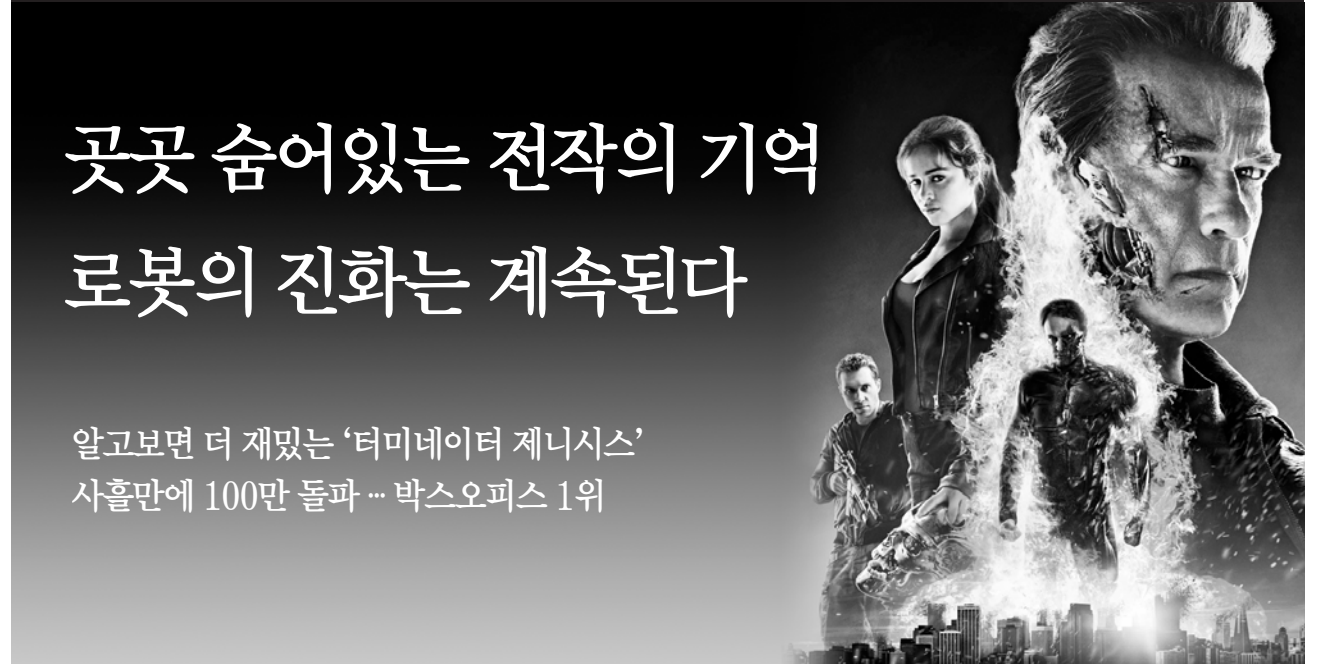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2015 광주U대회 특집 한영공동제작 디스커버링 코리아 푸드 제1부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30 MBC 생활뉴스 54 기본 좋은 날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초초초 55 바른말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속채
12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1대100(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2	00 2015 광주유니비시아드 월드컵 두 광주 30 여기는 광주 (양궁 외)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웍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절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20 쾌도난마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정고무신4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2015 광주U대회 특집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왕국록)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팹)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 특별기획 (왕정)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40 모큐드라마(싸인)(재)	20 1차 세계대전 여느 병사들의 이야기	30 2015 광주유니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0 잊혀진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곳곳 숨어있는 전작의 기억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알고보면 더 재밌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사흘만에 100만 돌파... 박스오피스 1위

이번 주 개봉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사진)는 1984년 첫 번째 '터미네이터'로부터 31년 지나 탄생한 다섯 번째 영화다. 중년 관객은 어린 시절 봤던 1, 2편 오리지널 작품의 세부 장면들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젊은 관객은 전작들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영화 곳곳에 숨어 있어 알고 보면 더 즐거울 포인트를 소개한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 담긴 1, 2편에 대한 오마주=전설이 된 명대사는 이번 영화에서도 살아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독특한 억양으로 울려 퍼지는 "돌아올게(I'll be back)"와 "살고 싶으면 따라와(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라는 대사가 그대로 쿼에 꽂힌다.

인간 저항군의 사령관 존 코너의 존재를 지우려 그의 어머니 새라 코너를 없애려 과거로 넘어온 T-800과 그녀를 지키려 시간여행을 하는 카일 리스가 1984년에 도착하는 장면들은 1편과 비슷하다.

T-800이 도착하고 나서 그의 뒤로 보이는 노란 트랙, 그가 공원 난간에 서서 로스앤젤레스(LA)의 야경을 바라보는 장면, 이어 캄패 3명을 만나 옷을 뺀 장면이 1편에서의 장면과 같다. 이어 카일 리스가 도착하는 모습, 그를 보고 놀라는 거리의 청소부, LA 뒷골목을 지나가는 강아지, 부랑자의 바지를 빼앗아 입는 모습 역시 1편에서 따왔다.

카일 리스가 T-1000을 피해 들어간 옷 가게에서 골라 입는 옷, 나이키 반달 스니커즈 역시 1편과 같다. 제작진은 이 운동을 구하려 중고품 할인점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그 결과 영화 개봉을 앞두고 미국에서 같은 디자인의 운동화가 새로 출시되기도 했다.

이번에 한국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T-1000이 경찰복을 입은 것도 '터미네이터2'의 설정을 따른 것.

엘런 테일러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2편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도 이번 영화에 깜짝 카메라로 모셔왔다. '터미네이터' 시리즈 통틀어 가장 소름끼치는 악역이라 할 만한 T-1000을 연기한 배우 로버트 패트릭으로, 이번 영화에서 T-3000과 T-800이 육탄전을 벌이는 2017년의 병원 장면에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바로 그다.

◇T-800부터 T-3000까지~터미네이터 계보=편수를 거

듭할수록 진화하는 파괴 로봇들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들이다.

▲T-800=슈워제네거가 오랜 세월 맡아 터미네이터의 상징이 된 인간형 로봇. 1편에서 새라 코너를 제거하려 미래에서 날아온 로봇으로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생체조직으로 덮였고 맘과 피를 흘린다. 체취까지 풍겨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 개는 식별할 수 있다. 붉은빛의 시각 센서를 통해 밤에도 낮처럼 물체를 구별한다.

2편에서는 미래 세계의 존 코너가 T-800의 시스템을 조작해 어린 존 코너와 사라 코너를 보호하려 과거로 보낸 로봇이다. 이번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는 1편 이전의 과거로 보내져 새라 코너가 9살일 때부터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T-850=T-800을 업그레이드한 후속 모델이지만, T-800과 큰 차이점이 없다. 역시 슈워제네거가 맡은 역할이기 때문.

▲T-1000=액체금속 로봇. 접촉한 인간 또는 물체에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좁은 틈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손을 무기로 만들어 공격할 수 있고 총에 맞아도 순식간에 복구된다. 극저온과 극고온에서는 기능을 상실한다. 2편에서는 로버트 패트릭이, 이번 5편에서는 이병헌이 연기했다.

▲T-X=시리즈 최초로 여성의 외형으로 등장한 로봇. 3편에 등장하며 배우 크리스티나 로렌티 연기했다. 기존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민첩하고 운동능력이 높아졌으며 모든 기계장비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췄다.

▲T-3000=이제까지 등장한 터미네이터 중 능력이 가장 뛰어난 로봇. 특정 대상의 외형만 부여하는 T-1000과 달리 T-3000은 내부의 세밀한 프레임 구조까지 자유롭게 변형해 어느 곳이든 침투 가능하고 상대방이 가진 기술까지 흡수한다. T-1000의 단점을 보완해 화염에도 녹지 않으며 인공지능을 넘어선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된다.

◇개봉 사흘 만에 100만명 돌파=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전일 관객 51만8335명(매출액 점유율 44.7%)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가 105만2344명에 이르렀다. 이 영화는 개봉일이던 지난 2일 관객 25만2680명, 3일 27만9303명, 4일 51만8335명 등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안 아침	09:40 토크쇼 부모-고수다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문화를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엘정의 나라 쿠바를 가다)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포츠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남한강 천리길)
08:00 덩동덩 유치원	13:05 시사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크클럽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백성의 물고기)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딸리졌어요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고마 철학자 유교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전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아시안 기행)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알파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00 2015 공민증가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국어 3-1>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 <국어 4-1>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픽스 <문학-알파개념(재)>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20 " <국어 5-1>
02:30 " <미적분>	15:40 " <미적분B(재)>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국어 6-1>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10 중학단기특강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 <미적분B>	17:20 " <미적분B(재)>	<영어1 독해240제>	18:00 중학단기특강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9:50 " <수학 1 280제>	<영어3 독해240제>
06:00 " <생명과과학>	19:30 " <영어>	10:30 " <역사 1>	18:40 " <수학 3 300제>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창사특집	11:10 중학단기특강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영어2 독해240제>	20:00 EBS 기획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리의 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1:50 " <수학 2 300제>	20:50 EBS 기획시리즈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문학A형(재)>	12:30 실천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2:30 최재현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10 등업산공 <수학 1(상)>	22:00 등업산공 <과학 2-1>
11:00 " <수학>	23:10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종합>	13:50 " <과학 1-1>	22:40 " <수학 3(상)>
12:15 올림픽스 <국어-알파개념(재)>	23:50 지식채널e	14:30 " <수학 2(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6일(음 5월 21일 癸未)

子	48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60년생 시선을 사로잡고 귀 기울이게 하는 바가 보인다. 72년생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는 형편에서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84년생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48, 02	午	42년생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다. 54년생 효행이 있는 악을 얻는 이치이니라. 66년생 결과에 얽매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하다. 78년생 문사에 이로움이 있으니 잘 활용에 보자. 행운의 숫자 : 07, 08
丑	49년생 제3자의 충고를 명심하자. 61년생 끈질긴 인내와 빈틈없는 조처가 절실한 요구 된다. 73년생 미진한 가운데서 버티는 라고 고생이 많겠다. 85년생 밤심 한다면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25	未	43년생 역사사지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리라. 55년생 보완한 한다면 달성하리라. 67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에 얽매지 않는 법이다. 79년생 반대 잡으려다 조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03
寅	38년생 구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50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나 확실해 붙잡아라. 62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불리하니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86년생 소홀히 한다면 함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13	申	44년생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라. 56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니가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68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비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0년생 마음이 끌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36, 35
卯	39년생 일시적인 방편을 도모 하지 말라. 51년생 세질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도. 63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75년생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할 수 있다. 87년생 재물 운이 왕성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37	酉	45년생 망망대해의 일일편주로다. 57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69년생 상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보야 한다. 81년생 일장춘몽이나 잠으로 허무하기 그지없겠다. 행운의 숫자 : 14, 06
辰	40년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52년생 능담이 진담이 될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조심대로라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다. 76년생 많이 알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16	戌	46년생 울고 싶든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웃고 있다. 58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0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82년생 보기 드문 현대 앞에서 놀라리라. 행운의 숫자 : 20, 05
巳	41년생 시선을 딴 대로 돌려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라. 53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겠다. 65년생 비웃을 때 새롭게 답을 수 있을이니라. 77년생 길서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낀다. 행운의 숫자 : 63, 54	亥	47년생 아찔한 상황이 보이느니라. 59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71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83년생 무부조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7,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세련된 감정 연기를 위해 계속 노력할거예요”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첫 주연 한채아



"2006년 데뷔한 이래 드라마를 많이 했어요. 영화에 출연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드라마나 영화 모두 배우가 그 안에서 연기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 분위기나 카메라가 돌아가는 방식에서 영화가 주는 매력에 매료되고요. 앞으로도 (영화에 출연할)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최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배우 한채아(33·사진)는 연예계 데뷔 10년차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한채아는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식약처 검사관 '미'로 분해 감찰한 눈빛 연기를 선보인다. 중국산 장어를 소재로 한국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 불통, 대립,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채아의 영화 첫 주연작이다.

2012년 코미디 영화 '아부의 왕'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데 이어 지난해 코미디 영화 '한탕'에 신구·이문식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됐으나 제작이 무산됐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촬영을 끝내고 1년 반 뒤에 개봉하는 영화라 제게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객관적으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죠. 그만큼 제 연기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라는 캐릭터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김기덕 감독이 여섯 번째로 제작과 각본을 맡은 영화로, 김동후 감독이 자신의 첫 장편 영화로 메가폰을 잡았다.

김 감독은 영화 언론사 사회 자리에서 한채아가 '김기덕표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후 감독님께서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각시탈'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기덕 감독님이 제작과 각본을 맡으신 영화라고 해서 시나리오 읽기 전부터 궁금하기도, 겁이 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무엇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실까 이런 선입견이 제게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미'라는 캐릭터의 심리를 관객들이 잘 느끼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어요."

한채아는 30대에 접어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싯적 달달한 성격에 영화를 보면서 우는 모습마저 창피해했던 그녀다.

"의로움조차도 귀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털털하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죠. 감정을 남에게 보이는 게 창피

해서 영화 보면서 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30대가 되면서 감정표현이 솔직해지네요. 너무 외롭다고 친구에게 말하는 게 모습은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죠."

한채아는 배우 유해진이 나오는 영화를 유달리 좋아한다고 했다.

"유해진 선배가 나오면 누워 있다가도 앉게 돼요. 연기에 사랑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분이예요. 영화가 지루하다거나 유해진 선배가 나오면 뭔가 새로운 내용이나 반전이 나올 것 같아요. 연기 내용을 쌓아가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녀는 지금보다 감각을 키워 세련된 연기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화에 필요하다면 노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발성이나 호흡 등 제 연기가 너무 정형화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감각을 키워서 세련된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영화 제의를 받았을 때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아직 작품에서 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출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에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도전해보고 싶어요."

-연습뉴스